

메시지 4

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앎

성경: 빌 3:10, 12-14, 요 11:25, 행 2:24, 고후 1:8-9, 계 1:17하-18, 2:8

I.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했다 — 빌 3:10.

- A. 빌립보서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— 빌 2:2, 5, 3:7-10, 4:10, 13.
- B.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갖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,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체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.
- C.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다 — 빌 3:8.
- D.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, 그런 다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추구했다. 즉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를 추구했다.
- E.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‘알다’라는 말은 ‘체험하다’와 똑같은 뜻이다.
 - 1.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을 체험하고, 그분을 누리고, 그분께 참여하고, 그분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— 빌 3:9-10.
 - 2.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처럼 그분을 체험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— 빌 3:8.
- F.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, 그분의 인격 자체를 얻는 것이다 — 빌 3:8, 고후 2:10, 비교 골 2:9, 16-17.
 - 1.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— 빌 3:7-8.
 - 2.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며 소유하는 것이다 — 엡 3:8, 비교 계 3:18.
 - 3.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생활이다 — 엡 3:8.
 - a.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상당히 체험하고 얻었지만, 자신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했다거나 최대한으로 얻었다고 여기지 않았다 — 빌 3:12.
 - b. 바울은 여전히 목표, 곧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한 정도로 얻는 것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었다 — 빌 3:12-14.
 - 4. 바울은 가장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유대교에서의 체험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, 그리스도에 대한 과거의 체험 가운데 머물려고 하지도 않았다 — 빌 3:7-8, 13.
 - a. 우리가 과거의 체험을 잊지 않고 그 안에 머문다면, 그 체험들이 아무리 참된 것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 — 빌 3:13, 히 6:1상.
 - b.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분의 풍성은 광대한 영토와 같기 때문에, 바울은 이 영토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었다 — 엡 3:8, 빌 3:13.
- G.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 안에서 발견된 결과이다 — 빌 3:9-10.
 - 1. 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,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’로 인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— 빌 3:9.
 - 2.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못한다.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,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지 못하게 된다 — 빌 3:9상.

II.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열망했다 — 빌 3:10.

- A.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분의 부활 생명이다 — 엡 1:19-20.

B.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시다 — 요 11:25.

1. “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, 살아 있는 이이다. 내가 죽은 적이 있다. 그런데 보아라,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,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.” — 계 1:17하-18.
 - a. 타락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,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음부로 모으기 위해 운행하고 있다.
 - b.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의 손에 있다 — 계 1:18.
2. “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.” — 계 2:8.
 - a. ‘다시 살아난’은 부활을 가리킨다.
 - b.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다. 그분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,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다.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이다 — 행 2:24, 요 11:25.
 - c. 그리스도는 음부로 들어가셨고, 죽음을 통과하셨으며, 죽음을 이기셨고, 승리에 차서 죽음에서 나오셨다. 이것이 부활이다 — 비교 벧전 3:18-22.
3. 부활은 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장애물들, 심지어 모든 것 중 가장 큰 장애물인 죽음까지도 돌파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— 행 2:24, 엡 1:19-20.
 - a. 주님의 부활은 천연적인 영역의 모든 장애물을 깨뜨렸다. 따라서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여 어떤 것에도 더 이상 매이지 않으신다 — 비교 요 7:6-8.
 - b. 우리에게 가장 큰 제한은 공간과 시간이다.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한할 수 없다.
 - c. 죽음은 가장 큰 제한이지만, 부활이 죽음을 정복했다. 그러므로 부활이 모든 것 중 가장 큰 능력이다 — 빌 3:10, 엡 1:19-20.

C. 부활은 죽음에 의해 어떤 손상이나 해를 당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다 — 요 11:25, 계 1:17하-18, 2:8.

1. 죽음은 부활 생명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— 행 2:24.
2. 죽음은 다른 형태의 생명에는 온갖 해를 끼칠 수 있다. 그러나 죽음이 손상할 수 없는 오직 한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, 바로 부활 생명이다 — 요 11:25, 빌 3:10.
 - a.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에 붙잡힐 수 없는 생명이다.
 - b. 성경의 완전한 계시에 따르면, 하나님 자신이 부활 생명이시다 — 롬 4:17.

D. 그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능력의 실재이시다 — 롬 8:9-11, 고전 15:45하, 요일 5:6.

1.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려면,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보아야 한다 — 고전 15:45하.
2. 부활에 대한 가장 높은 정의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게 한 과정이라는 것이다.
3.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변형되신 것이다 — 고전 15:45하, 요 20:22.

E. 부활의 원칙은 타고난 생명이 죽음당하고 그 자리에 신성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— 고후 1:8-9.

1. 죽음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것이 부활이다 — 계 2:8.
2. 부활은 죽음 밖으로 나와 천연적인 영역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다 — 행 2:24.
3. 부활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— 고후 1:8-9.
4.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, 우리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이 부활 안에서 높아져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의미한다 — 롬 6:4-6.
5.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,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 — 요 6:57, 롬 8:11.